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7회, 고린도후서 6장, 기독교 관계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7, 고린도후서 6, 기독교 관계입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계속 옹호하는 것을 보고, 결국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대사, 주님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6장에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성실성을 어떻게 계속 옹호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자신의 행동과 경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옹호합니다. 그래서 그가 6장에서 하는 일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고 1절과 2절에서 전환적 진술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일함에 따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기뻐하실 때에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노라 하셨음이니라.

보세요, 지금이 받아들일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이 그 구절에 익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기를 원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이 받아들일 만한 때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원래 맥락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는 그의 성실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동시에,

그가 5장 17절에서 21절에서 보여준 구원과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그의 제시에 대한 실질적인 결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변호를 계속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며, 특히 그의 부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자신의 행보를 신의 사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걷는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것은 부사 분사인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홀로 서 있다.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의 구절들은 바울이 사역에서 협력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바울과 하나님은 동역자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매우 격려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우리 가 무엇을 하든 우리만의 장치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격려가 되고, 그것 외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함께 걷고, 그와 함께 걷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인 바울과 하나님은 동역자이자 수고자이며,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실제적인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49장 8절을 따라 자신의 간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종과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증거로서 자신과 화해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세부 사항에서 실제적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영적인 유익,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쓸모없고 공허한 것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6장 2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특히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강조점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린도인과 사도의 관계에 대한 권고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시리즈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과 고린도인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소원해졌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화해에 대해 말할 때, 화해는 하나님께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당신이 사도와 마찬가지로 나와도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양방향 도로입니다.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해,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화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하느님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그들 가운데서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노력에 저항할까 두려워했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15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 삶만이 우리가 화해된 삶을 살 때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서로의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유일한 개인적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고립된 채 기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 웨슬리가 말한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거룩한 간통자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고립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간통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를 하려면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눈독을 들이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사람들이 그런 경우 우리는 문제에 취약해집니다.

사무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구약성경과 이스라엘 자손을 읽을 때, 오히려 조르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고 있었고, 단 지파가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안전 속에 살았고, 모든 사람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만의 섬에서 살고, 우리만의 고치 속에 들어가고, 누구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하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진실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에서조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상응하는 화해를 필요로 하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올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들, 특히 신자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청중에게 새로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고와 바울의 권고는 고린도인들이 사도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 하나님의 사자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같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해석자들은 2절을 괄호로 볼 것이지만, 그것은 그의 복음의 근본적인 가정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1절에서 그의 호소를 드러내고 강화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사야 49장에서 내가 은혜의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를 보면,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바빌론 유배에서 나라를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이스라엘이 유배에서 구원받는 그날에 도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세르라고 알고 있는 유대교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바울은 이사야의 인용문을 그의 동시대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로운 때이다. 보라 ,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바울이 지금 보라를 두 번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두 번을 보십시오. 그것은 예언적 미래, 즉 현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 행위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지금 이 순간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는 구원 역사에서 위기의 순간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라는 그의 초대에 모든 사람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적인 시간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설교는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종말론적 사건 자체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시대를 환영할까요? 바울의 설교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메시지로 만납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바울의 역할은 매우, 매우 전략적입니다. 이제 3절에서 바울은 그 주장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는 어떤 일에서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을 읽어보면 3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흠이 잡히지 않도록 누구의 길에도 장애물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권고는 사도적 사역의 질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동 사이에는 신뢰성 격차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 사이에는 신뢰성 격차가 없었는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신뢰성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공언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실행합니다.

행위와 교리 사이에는 신뢰성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복음이 자신의 삶에 반영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행실은 복음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보다시피, 이 연속성은 2절을 보면 문법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2절은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주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역에 흠이 발견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장애물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바울은 어떤 것에도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복음 사역에 대한 비난을 덜 합니다. 아시다시피,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장애물로 번역된 단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무언가 또는 다른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세상과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논평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는 우리 대부분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들려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설교하고, 다른 것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이발소에 간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여전히 이발소에 가는 우리,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발소에 가면 보통 음악과 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 이발소에 가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 이발소에 가면, 그들은 많은 농담을 하고, 많은 것들을 말하고, 읽고 싶지 않은 많은 문학 작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 이 설교자는 아들과 함께 이발소에 갔고,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그 소년은 그냥 조용히 있었고, 그 아빠도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발소에서 나온 후, 그 아빠는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들이야, 네가 이발소에 있는 동안 내내 조용히 있는 것을 보았고, 너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소년은 "네,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이에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음, 저는 설교단 뒤에 계신 아버지를 봤어요. 저는 이발소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글썄요, 당신이 우리에게 음란한 농담과 다른 모든 것에 웃으면 우리가 참여한다고 가르쳤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당신의 행동도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당신이 실천하는 것과 똑같은지. 그리고 아빠가,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아니요,

아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부합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우리 삶에 맞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복음에 맞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 자신의 기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 부합하고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논평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복음에 대한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이나 다소 당혹스러운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위대한 신학적 진리나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복음을 잘못 표현하여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없을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사랑을 설교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중요입니다. 우리는 화해를 설교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분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설교하지만,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나는 이것을 화해시킬 수 없어.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과 행동, 교리와 행위 사이에 틈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흥미를 잃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바울은 우리가 불쾌감을 줄 기회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전한 사도적 메시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를 봐. 기본적으로, 이게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 내 삶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해. 내 삶과 내 입술 사이에는 구분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고난조차도 사도직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그가 계속 나아가면서 그것을 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비난을 가져온다. 비록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나 목사가 되는 것은 큰 책임이며,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헬스장에서 뭔가 되고 교회에서 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적으로는 성인이고 사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수 없어. 풀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는 교회에서는 천사이고 다른 곳에서는 악마가 아니야.

아니요, 바울은 내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은 내가 전파한 복음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면에서 큰 인내와 환난과 곤경과 재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폭동과 수고와 잠 못 이루는 밤과 굶주림과 정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거룩함과 영과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존귀와 욕됨과 악명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기꾼으로 취급받지만, 우리는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잘 알려져 있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는 별을 받는 것처럼 살아 있지만 죽지 않고, 슬퍼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 폴은 바로 거기에 말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에 담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 폴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름을 옹호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의 고린도 비방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임명하신 영예가 성공과 탁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메시아가 화려하고 화려하게 오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열성적인 사람들은 와서 칼을 들고 그들을 이끌고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인들은 사도로서의 명예는 성공하고 탁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고난조차도 사도직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의 일관된 메시지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종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계를 통해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4절에서 10절에 언급된 모든 조건은 그의 종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바울은 우리가 서정적 수사학적 구조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제 말은, 마치 고난의 목록을 시작으로 미덕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다양한 문제와 대조로 가는 사람이 거의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첫 구절은 그의 행실을 묘사하면서, 큰 인내로, 큰 인내를 통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큰 인내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제 말은, 그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많은 것을 견뎌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보면, 가능한 한 가깝게 유지합니다. 제 말은, NIV를 읽으면 바로 여기에서 좋은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면밀히 따르면서, 그는 큰 인내, 고난, 고난, 곤경, 그리고 매맛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읽어드린 버전에는 in, in, in, in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IV에는 추가되어서 조금 더 서정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배고픔을 느끼고, 순수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사역에 대한 역설적인 이해로 돌아가서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장 7절에서 12절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다시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자격에 대한 또 다른 목록을 제시하는데, 다소 더 자세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잠시 동안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화해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호 복귀는 4절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사도적 고난에 대한 그의 웅변적인 묘사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암시로 끝납니다. 저는 바로 10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확언합니다.

하지만 살펴보죠. 바울의 사도적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큰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울에게도 분명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것은 인내로 시작해서, 그는 그것이 고난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가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압박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곤경과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투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폭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폭동. 바울이 여기에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폭동에 대해 읽을 때 사도행전 13장 50절, 사도행전 14장 19절, 사도행전 16장 19절,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겪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제 들어보세요, 이게 바울이 자신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것들은 외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타, 투옥, 폭동에 대해 말할 때, 이것들은 그가 스스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외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그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동에서.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과 배고픔에서. 그것들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를 부인해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에서의 희생의 일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이제, 폴이 "음, 나는 불면증이 있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폴은 불면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필요한 수면을 박탈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는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말하길, 글썄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을 언급하세요.

그는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러니 이 남자가 밤을 기도로 보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밤을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그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그게 뭐든 간에.

배고픔에서. 이 고난은 우리가 4장, 8장, 10장에서 발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다시피, 그 모든 것을 나열한 후에, 그는 시작해서, 말하자면 숨을 쉬었고, 이제 그는 소개된 여덟 가지 영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신 수단을 말합니다. 이 여덟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함으로. 순수함으로.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함이죠. 그는 동기를 지켰으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사역을 수행하고, 제 동기는 순수했고, 그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이나 이해로 말합니다.

이해. 무엇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 그의 삶과 모든 인류에 대한 의미 모두에서.

그런 다음, 그는 친절과 인내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내심과 관용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순수함으로, 지식으로, 인내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단어를 마주칩니다. 우리는 이전 토론에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인내, 관용.

그는 분노나 복수심으로 반응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모든 상처, 모든 모욕, 모든 완고함, 모든 어리석음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누군가가 신과 함께 권위나 능력을 가지고 신이 그의 모든 적을 쳐부수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저는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그들을 없애주세요.

그들을 돌봐. 신이 할 수 있었어, 그냥 신에게, 신이여, 그들을 핵무기로 공격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었어. 아니, 전혀 안 돼.

오히려 그는 인내심으로 그들을 참았습니다. 그는 분노나 복수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욕을 참았습니다. 선교사일 때, 우리가 목사일 때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건가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노골적으로 거짓된 말을 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것은 대다수의 세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세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잘하고 있는 목사를 보고,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축복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려지도록 그 목사의 머리를 밟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지금 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믿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당신은 YouTube에서 그런 모든 종류의 것을 봅니다.

하지만 폴을 보세요. 그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프리카 어딘가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에 대해 YouTube에서 녹화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목사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많은 거짓말,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해서, 당신에 대한 이런 것을 봤어요라고 말했고, 당신에 대한 이런 것을 보고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글썄요, 이 사람이 지금 저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는 저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는 말했습니다. 글썄요, 저는 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고, 그는 그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는 그런 일이 그를 괴롭히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노나 복수로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의 상처, 모욕, 완고함, 어리석음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친절을 보였습니다.

보세요, 순수함으로, 지식으로, 인내로, 친절함으로. 이제 이걸 보세요. 흥미롭지 않나요? 이걸 읽으면서 떠오르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나는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보세요. 순수함, 지식, 인내, 친절, 거룩함, 또는 영, 진정한 사랑으로 진실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성령의 열매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저 덧붙이는 말이고, 단수형 단어이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미덕을 가진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골라서 선택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래 참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오래 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친절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함을 좋아하지만 사랑은 싫어. 나는 사랑을 좋아하지만 인내심은 싫어. 아니, 성령의 열매는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

그것은 공동체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져야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그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수함으로, 지식으로, 인내로, 친절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이나 영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해야 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우리는 거룩함이나 영이 이 특정한 경우에 더 적절해 보이고, 그는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고 진실한 말로,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을 위한 의의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싸웠고,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의의 무기, 의의 무기, 그리고 그는 사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반영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는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실함에 대해 말할 때, 알다시피, 허락해 주세요, 그리스어 단어는 위선 없이, 매우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허세 없이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다음 그는 진리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대한 확실한 것과 평행하게 분명히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진리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로 넘어가서, 그가 오른손과 왼손에 어떤 의의 무기를, 그리고 명예와 욕됨에 무기를 가지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른손과 왼손에 은유적으로 전투 도구를 휘두릅니다.

이것들은 갑옷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옛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즉,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운 무기인 의의 무기, 그리고 그는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통해 영광과 불명예를 말합니다.

제 말은, 바울이 여기서 꽤 많은 말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 그는 명예와 불명예로, 8절에서 악명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포로 취급을 받지만,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보세요. 우리는 사기꾼, 속이는 자로 취급받습니다.

아직 우리는 진실한지.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우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우리는 살아 있다 .

벌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지만 항상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역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사기꾼과 속이는 자로 여겼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1장 15절에서 21절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가 변덕스럽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절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우리가 상기시켰듯이, elaphria 입니다 . 매우, 매우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신뢰할 수 없으며, 그의 말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니,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에서, 특히 바울의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18편 15~16절을 읽어보면, 나는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행하신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지만 항상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세요.

이 역설은 바울이 사역의 사건들 가운데서 모호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물질적 빈곤에 대한 그의 경험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날 소위 번영의 복음과 어떻게 맞아떨어질까요? 바울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물질적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제 말은, 하지만 그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자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그들의 영적 풍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세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인해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모든 말과 모든 지식으로. 즉,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나중에 이야기할 고린도후서 8, 9장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예수님의 삶의 대리적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할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나니, 그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느니라. 그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여러분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셨느니라.

보시다시피, 이 두 진술 모두 이사야에서 본 종에 대한 묘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사역과 고난에 관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10절에서, 11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인들아. 우리의 마음은 넓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

우리의 애정에는 제한이 없지만, 오직 당신의 애정에만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에는 제한이 없지만, 오직 당신의 애정에만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가로 나는 자녀들에게 말한다. 너희 마음을 우리에게도 넓게 열어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 의와 불법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빛과 어둠이 무슨 사귀이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일치가 있으며,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무슨 일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무슨 일치가 있으며,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글을 쓸 때의 자유와 물론 그들이 그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큰 자리를 주목하게 했다.

그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자리. 보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말하고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받거나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영적 아버지로서 자신에 대한 감정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의 사랑에 보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동등한 자리를 주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은 13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 상처, 악의, 관계에서의 불신의 재앙적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보통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족들은 소외와 깨진 관계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화해 사역이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동시에 바울은 그들이 그와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애정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할 수 없고, 바울의 지시에 반대하는 교사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한 그들이 해야 할 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과 분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6장 14절에 이르러 7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구절은 바울 서신의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멍에를 같이 메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섹션이 우리가 보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없었고, 그들은 그것이 적어도 하나 또는 두 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번은 그 구절의 어휘입니다. 그 구절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 그 구절을 보고, 살펴보면 6.13과 7.2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13절부터 읽고 7장 2절로 가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바울이 마음을 넓게 열면 우리가 여러분을 향해 마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때, 7장 2절로 가면 바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이 삽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강의에서 말했듯이, 증명의 책임은 그것을 삽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곳에서 그 구절이 바울 서신에서 거룩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말할 때, 바울이 거룩함의 규범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레위기 19장에서 직접 발췌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구약에서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 그리고 저는 그 구절이 신약의 거의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작가에 의해 인용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서로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는 것은 특히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거기에서 그것을 봅니다.

레위기 19장을 볼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은 2절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거룩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는 거룩함이라.

이제 레위기 19장 정중앙에 있는 19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의 지위를 지켜야 하며, 너희는 너희 가축을 두 종류로 번식시키지 말고, 너희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두 종류의 재료를 섞어 만든 옷을 입지 말라. 칠십인역의 그 구절, 거기에 쓰인 단어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에서 우리는 이형접합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른 종을 취해 함께 매치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사용한 단어이고, 그 단어는 칠십인역의 레위기 19장에도 사용됩니다. 칠십인역은 구약의 그리스어 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절을 거룩함의 법전에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사야 43장 8절을 인용하고 레위기 17장도 인용해서 성경 구절들을 그냥 엮어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 사이에 무슨 동반자가 있느냐? 빛과 어둠 사이에 무슨 사귀이 있느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믿는 자들이 의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의와 불법 사이에 무슨 동반자가 있느냐? 빛과 어둠 사이에 무슨 사귀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슨 공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느냐?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전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살펴볼 것이 꽤 많습니다. 그는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분리는 분리가 아니고 분리는 고립이 아닙니다.

분리는 분리가 아니고, 분리는 고립이 아닙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어딘가 산에 가서 살고 동굴에 숨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리가 아닙니다. 글썄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분리와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분리, 여러분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신자들을 우리가 반사회라고 부르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봅니다. 우리의 가치관, 행동, 믿음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구절을 결혼에 대해 인용하는데, 결혼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구절은 주로 결혼이나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복수형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말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 이는 바울이 개인과 공동체를 대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곳에서 그는 개인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도 에베소서에서처럼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성전이 평범한 건물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신의 존재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신의 존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어로 *kathedra* 라는 단어는 좌석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대성당으로 만드는 것은 주교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없다면 그것은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평범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신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는 프로그램에 매료되어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지만, 존재감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이 여기 있는가? 신이 이 가운데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우리는 보통, 당신은 죄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성전이기에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만약 신이 인간이 담배를 피우기를 원했다면, 그는 코를 머리 뒤쪽에 두었을 것이라고 말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재빨리 떠올렸다. 그러면 당신이 코로 불 때 입으로 불 때, 그것은 당신의 머리 뒤쪽에서 배기관으로 나올 것이다. 그건 그냥 덧불인 말이다. 우리는 신의 성전이다.

우리는 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제, 이건 흥미롭습니다. 성전에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것은 나오스입니다. 제 말은, 여기 성전을 찾고 그 다음에 나오스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오스는 내부 성소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는 아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오스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신의 성전입니다. 신의 현존입니다. 이제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목사와 성직자는 그 성전을 대하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자들은 무료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통행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열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더러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1장에서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상들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얼마나 일치합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나는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다시 레위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는 지금 이사야 52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그들과 따로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환영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시피, 불평등한 멍에를 벗어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딸로 여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멍에가 사람을 구원에서 잃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그 관계에 수반되는 축복에 대한 인식을 앗아갑니다. 불의한 죄는 누구의 영적 삶에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너희는 내 딸이 될 것이다. 그러니 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을까요? 헛되이 받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경우를 기억하세요. 바울은 사도로서 나와 화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서로에 대한 관계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삶에서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죄를 멀리함으로써 나타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더 나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합니다. 삶과 사역에서 어떤 면에서 불평등하게 멍에를 메게 될 수 있을까요? 불평등한 멍에의 유혹이 보통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단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우야 박사 의 말씀입니다 . 이것은 세션 7, 고린도후서 6, 기독교 관계입니다.